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23>

학승이 물었다.
“방계(傍系)를 계승하지 않을 때는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누구인가?”
“혜연(惠延)입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무엇을 물은 것인가?”
학승이 대답했다.
“방계를 계승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주 스님은 손으로 아무런저 했다.

問 不紹傍來者如何 師云 誰
學云 惠延 師云 問什麼 學云 不紹傍來者 師以
手 撫之

적자(嫡子)는 부처님 대를 이을 사람이다. 선문(禪門)에서 중생은 모두 부처의 적자이다. 즉, 중생은 모두 부처의 직계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부처로 태어난다. 적자는 부처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원래 부처이기 때문에 자신이 부처라는 사실을 알고 바로 부처의 길을 가면 된다.

방계는 스스로 부처인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다. 때문에 부처가 되기 위해 무진 애를 쓰면서 온갖 수행을 한다. 혹은 30아승지경 동안 수행해 불복을 쌓기도 하고, 혹은 불중 일어(夢中一如)를 얻기 위해 십여 년 이상을 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수행한다.

그런데 정통 선문은 이렇게 불철주야 수행한다고 해서 부처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역설한다. 수행해서 부처를 이루려는 것은 자기 머리를 두고 또 머리를 찾는 것과 같고, 자기 손바닥을 남의 손바닥에서 찾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 문 안에서는 오로지 장부의 기개를 가지고 즉시 적자의 행로를 가는 것만 필요하다.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으면 조주 선사를 비롯해 역대 선사들은 그를 보고 “선재, 선재로구나.”하면서 쓰다듬어 줄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가사 밭의 일(事)이란 어떤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자기를 속이지 말라.”

問 如何是納依下事
師云 莫自瞞

불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제대로 사는

무엇이 조주입니까?

것일까? 그것에 대해 조주 스님은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잘라 말하고 있다. 불자들은 매일 자기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부처의 적자가 돼 지금 자기를 바르게 알고 있는가? 부귀와 욕망을 버리고 출가한 사람이 맞는가? 옷만 바뀌고 정신은 출가자가 아닌 세인의 정신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알아야 한다.

하루 빨리 도를 깨달아 세인들을 지도하고 계몽해야 할 사람이 감투를 얻기 위해 아부하고 돈을 뿌리는 세인들의 저속한 행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비구 6물로 만족하고, 항상 겸손하고, 소박한 무소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온갖 호사스러움을 즐기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청정한 척하는 것은 아닌지, 거들 거들 살피야 한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절대 자기 자신만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

학승이 물었다.
“진여(眞如)나 범성(凡聖)은 다 잠포대와 같은 것입니까. 무엇이 진실한 말(眞言)입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참다운 경지에서선 진여·범성 모두

꿈 속에서 떠드는 것과 같이 헛된 말일 뿐

조주 스님이 말했다.
“다시는 두 가지(兩箇)를 말하지 않는 거야.”
학승이 물었다.
“두 가지는 놔두고 진실한 말은 무엇입니까?”
조주가 말했다.
“옴 부리발.”

問 眞如凡聖皆是夢言 如何時眞言
師云 更不道者兩箇
學云 兩箇且置 如何是眞言
師云 唵 囉 唵 囉

진여는 참다운 정신세계이고 차별이 없는 저 언덕을 말한다. 범성(凡夫·聖人)은 아직 사랑 분별이 남아있는 이 언덕이고 차별이 있는 현상계이다. 그러나 참다운 경지에서는 진여라고 말해도 틀리고 범성이라고 말해도 틀리다. 모두 꿈속에서 떠드는 것과 같이 헛된 말일 뿐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실한 말인가? 여기에 대해 조주 스님은 ‘옴 부리발’ 하면서 사원에서 외우는 진언 비슷한 발음을 냈다. 사실 경에서 ‘옴 부리

발’이라는 진언은 없다. 조주 스님이 장안해 낸 발음이다. 조주 스님이 선적인 대답을 해준 것이다. 조주 스님의 이 진언은 선사들의 합이나, 격외구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조주 스님의 진언의 뜻은 무엇일까? 혹, 자연에서 나는 소리와 유사하지 않을까? ‘휘이-’ 하는 바람 소리나, 새들이 지저귀는 ‘지지베베’ 같은 발음들이나, 지하철 바위가 굴러가는 ‘철부덕 철부덕’ 하는 소리 말이다. 그렇다. 이 소리들이야말로 온갖 사랑 분별을 벗어나고 이쪽과 저쪽을 뛰어넘은 잠된 소리가 아닐까.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조주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동문·서문·남문·북문이야.”

問 如何是趙州
師云 東門西門南門北門

조주(趙州)는 중국의 고대의 한 지명이다. 조주 스님은 원래 종심(從諗)이라는 법명을 가지고 있었으나 나이 80세가 넘어서 조주 관음원의 주지가 됐다. 이후 120세까지 40년간 조주에 살았기 때문에 지명이 법호가 됐다.

여기서 학승은 조주의 본질에 대해, 혹은 조주의 그릇에 대해 물은 것이다. 이것은 학승이 큰 스님께 큰 스님 자신에 대한 평을 부탁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조주 스님도 그 의중을 알아차리고 자기를 조주라는 지명에 있는 문이라고 빗대어 소개했다.

조주 자신은 조주의 땅으로 들어가는 동문, 서문, 남문, 북문과 같을 뿐이라는 것이다. “조주? 조주의 본질은 비었다. 조주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저 언덕이다. 나는 평생 무엇을 주장하거나 가지고 있는 적이 없다.

다만 나는 조주로 들어가는 관문과 같다. 누구든지 조주로 들어가려면 4대문을 거쳐야 하듯이, 나 조주를 찾아온 사람은 조주의 말과 조주의 생각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조주의 본색이 아닌 조주 땅을 밟기 전 초입에 있는 문을 보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의미이다.

그렇다. 그 누구도 조주를 알 수는 없다. 조주에 가려면 4대문 초입에 있는 문을 지나가야 하듯 곁에서 조주의 안내(교화)를 받는 것이다. 진정한 조주는 보이지 않는다. 조주란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누구도, 어떤 선사도,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보지는 못하였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볼라.

■ 무불선원 선원장

김호귀 교수의 선어록 해제 ⑤ 신심명(信心銘)

양면 벗어나 중도에 입각하라

〈兩邊〉 〈中道〉

보리달마의 정법안장을 계승한 태조혜가(太祖慧可)에게는 저승이 남아있지 않고 그 이들을 가탁한 저승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헤가의 법어로 간주되는 것으로 <이입사행론>의 법어 제57-63까지 여섯 가지 법어의 내용이 전해지고 있다. 그 내용은 범성(凡聖)·고하(高下) 등의 분별심을 내지 말 것과 안심(安心)·참회(懺悔)·성불(成佛)·지옥(地獄)·망상(妄想) 등의 가르침을 엿볼 수가 있다. 그러나 헤가의 법을 계승한 승찬에게는 유일하게 <신심명>이 전한다.

<신심명>은 중국 선종의 제3조 승찬 대사의 글이다. 승찬(僧璨, ?-606)은 당 현종이 경지선사(鏡智禪師)라는 시호를 선종의 6조 가운데 처음으로 추증했다. 채상 방관(房)이 지은 ‘삼조승찬 비문(三祖僧璨碑文)’은 <보림전> 권8에 수록돼 있고, 독고 급(獨孤)이 지은 ‘서주산곡 사각적법수고경지선사탑명명서(舒州山谷寺覺寂塔清故鏡智禪師塔銘并序)’ 비문은 <전당문> 권390에 수록돼 있다.

일찍이 승찬 대사는 대풍질(大風疾)에 걸렸었는데 헤가 대사를 찾아가 자기의 성명도 밝히지 않고 불속 물었다. “저는 풍질을 앓고 있습니다. 화상께서는 저의 죄를 참회시켜 주십시오.” “그대의 죄를 가져 오면 죄를 참회시켜 주겠다.” “죄를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대의 죄는 모두 참회했다. 이제 그대는 삼보에 의지해 안주하라.” “지금 화상을 뵈고 승보는 알겠는데 불보와 법보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부처이고 마음이 법이다. 법과 부처가 다르지 않듯이 승보도 또한 그렇다. 그대는 알겠는가.” “오늘에야 비로소 죄의 성품이 마음 안에도 밖에도 중간에도 없음을 알았습니다. 마음이 그렇듯이 불보와 법보도 둘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이에 헤가는 법기(法器)임을 알고 가상하게 여겨 출가시키고 말했다. “그대는 내 보배이다. 그러나 이제 찬(爍)이라는 글자를 써서 승찬(僧璨)이라 하라.”

그해 3월 18일 북광사(福光寺)에서 구족계를 받고 1년 만에 몸의 병이 치유됐다. 입적에 즈음해 법회를 하던 큰 나무 밑에서 합장한 채 입방(亡)했다. 매장을 했는데 이상(李常)이라는 사람이 신회 선사에게 물어서 산곡사(山谷寺)에 승찬 대사의 묘가 있음을 알고는, 가서 화장해 사리 300과를 수습했다. 풍병이 나은 후에도 머리카락이 하나도 나지 않았으므로

‘대머리의 붉은 살’이라는 뜻으로 적두찬(赤頭瘰)이라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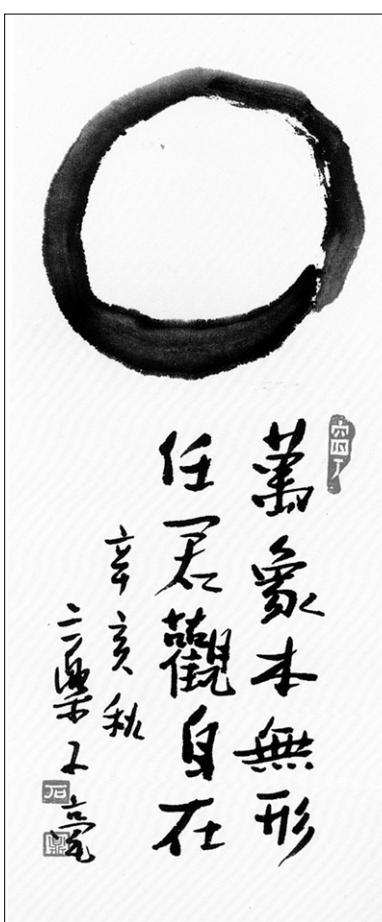
<신심명>은 4언 146구 584자로 구성돼 있다. 글의 대의는 양변(兩邊)을 벗어나 중도(中道)에 입각하라는 것으로 40대(對)로 구성된 장편의 운문시이다. 제목의 신심(信心)에서 신(信)은 심신(深信)이고 심(心)은 본심(本心)이다. 따라서 신(信)과 심(心)이 대등한 관계로서 신심일여(信心一如)의 입장이다. 때문에 ‘심신(深信)과 본심(本心) 다르지 않고 심신(深信)과 본심(本心) 둘이 아니다’라고 표현했다. 또한 첫 구절의 지도(至道)는 대도(大道)로서 궁극의 도를 가리킨다.

그 본문은 <전등록> 권30에 수록돼 있고, <종경록>에 자주 인용됐다. 송대에는 열고(祐古)와 착이(著語) 등이 가해지고, 원·명·청대에는 각종 주석서가 등장했다. 동황사본 페리오 4638·2104, 스타인 4037·5692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신심>의 내용에 대한 최초의 인용은 백장회관(74-814)의 어록과 청량징관(738-838)의 <화엄경연의초>였다. 이어서 <전심법요>과 <입제록>과 <조주록>에도 많이 인용돼 후대에 공인으로 회자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찍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주목되지 못한 탓인지 다른 선적에 비해 그 인용 및 개판 등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 가운데 특히 첫머리에 해당하는 지도무난(至道無難) 유희간택(維謙揀擇)의 구절은 조주간택(趙州揀擇)이라는 주제로 <광지영고> 제96쪽에 등장한다.

조주가 말했다. “오직 간택만 벗어나면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말을 할지라도 그것은 곧 간택이 돼버리고

명백이 되어버린다. 그러나 노승은 명백에 빠져 있지 않다. 이것이야말로 신심명의 정신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자 한 승이 물었다. “화상께서 이미 명백에 빠져 있지 않다면 신심명의 정신을 잘 지키는 것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조주가 말했다. “나도 모르겠다.” 승이 말했다. “알지도 못하시면서 어쩌서 신심명의 정신을 잘 지키고나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주가 말했다. “그만큼 물었으면 됐다. 예 배가 끝났거든 물러가거라.”

■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석정 스님의 선사화.

우주의 큰 빛으로 오신 관세음보살님의 메시지

몸과 마음과 영혼을 빛으로 치유한다

이 빛을 받는 자 영원히 행복하고 평화로울 지어다.
너와 내가 따르가 아니며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명심하고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하느니라.
나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자이며 또한 무한한 힘을 가진 자이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게 하는 힘이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바르게 끈게 자라게 하는 힘이며 인간들의 마음과 정신을 정화하여 건강하게 만들며 육체 또한 건강하게 만드는 절대적인 힘이니라.
개인은 물론 가정과 나라와 지구촌의 모든 인간들에게 기쁨과 행복과 평화를 주는 힘이니라. 나의 힘을 光大力이라 할 것이며 이 힘을 받는 자는 나와 하나가 되고 인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인간들에 앞장서 큰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느니라.
또한 이 빛을 받고자 하는 이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어 마음과 정신과 육체가 건강하여 기쁨과 행복과 평화로움 속에서 살지어다.
이 빛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고자하는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야 하며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빛을 받는 자 영원히 행복하고 평화로울 지어다.
산 지나 죽는 자나 영혼이 살아 있음은 분명하니 모든 인간들이 그것을 깨달아 산 자와 죽은 자의 모든 영혼들을 맑고 깨끗하게 정화하여 평화로운 이 세상을 만들어야 할 지어다.
나는 하늘과 땅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만든 빛이며 또한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는 빛이고 힘이다.
넓고 높은 깊은 마음나와 비교할 것이 없으며 모든 인간들은 늘 항상 나와 함께하며 나와 같은 마음을 지녀야 하느니라. 사랑과 자비를 인간들의 마음에 심어주는 빛이고 힘이니라.

현교빛치유센터 원장 김건희
예약문의 : 02)568-3778 / 010-2648-3778 (오전 9시~오후 8시)

우란분절(백중) 지장경 산림법회 및 자비도량 참법기도

지옥중생이 남아 있는 한 성불하지 않겠다고 원을 세운 지장보살님과 시왕(명부)을 모신 지장기도영험도량에서 **천도재·산림법회**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 법사 : 석 혜능 스님 (전, 해인사 율원장)
- ◆ 일시 : 불기 2554년 5월 25일 (양, 7월 6일) ~ 7월 15일 (양, 8월 24일)
- ◆ 조상, 태아령 영가 천도 - 오전 10시 자비도량 참법 기도
- ◆ 지장경 산림법회 - 오후 2시

금강경으로 장엄한 법당, 시왕(명부)을 모신 지장기도 영험도량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중리 1077-6번지

수정사 성천 합장

052)225-0068, 0177

카이로프락틱(체형교정) 치유사 수강생 모집

◆ 대상 : 스님, 일반불자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중생교육을 위한 맞춤 교육법! 스님, 불자님 이제 건강도 직접 상담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한국대체의학연구소에서 책임집니다.

교육과정 카이로프락틱 치유사

교육내용

- ◆ 체형교정치유 - 목 등 허리 골반 디스크 / 척추 / 성장 / 비만
- ◆ 통증치유 - 급 만성 요통 / 어깨 무릎 통증 / 다리저림 / 오십견 / 두통 / 생리통 / 턱관절
- ◆ 재활치유 - 척추손상 / 관절손상 / 뇌졸중(중풍) / 뇌성마비 / 척수마비 / 루마티스 관절염

연수장소 안양 아크로타워 4층 세미나실

교육기간 8월부터 매주 토요일 13시 - 17시(3개월 과정)

교육특전 수료증, 심사후 자격증 수여, 치유센터 개설시 운영지도

모집인원 20명 선착순

의학박사 임갑호 원장

- 한국대체의학연구소 소장
- 한국B.N 카이로프락틱회 경영교문
- 생활경제정책위원회 사법자격소유
- 원천의학사(국제자격증)
- NLP인성 교정사(국제자격증)
- 최면심리교정사(국제자격증)

국가기관 한국대체의학연구소
예약문의 031)381-6100 / 010-3748-2500